

마가복음의 ‘봄’과 관련된 동사들 -새로운 번역을 위한 신학적 관찰과 제안-

조태연*

1. 들어가는 말

마가복음은 드러난 의미와 감추어진 의미로 가득하다. 이 복음이 다른 신약 문서보다 은유와 상징이 잘 발달하였고 또 정교하게 구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빵과 몸 그리고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피가 대표적이다. 누룩과 전염병처럼 제자들에게 전이된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둔함), 씨와 사람의 생애 안에서 씨처럼 발아하여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내는 말씀의 소리와 같은 것들도 있다. 모두가 상상력을 자극하고 의미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

빛과 소리 그리고 봄과 들음 또한 예외가 아니다. 마가는 이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비유와 치유의 문학적 장치로 형상화하였다. 물론 ‘봄’과 ‘들음’은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인식 방법에 해당된다. 복음이 비범한 빛과 소리로 계시된다면, 믿음이란 비범한 계시에 대한 봄과 들음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참조, 롬 10:17).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이란 상상케 하는 힘이 있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 보게 한다(참조, 히 11:1). 진정성 있는 봄과 들음이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실존의 경험이다.

마가복음엔 ‘보다’를 뜻하는 동사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그들은 βλέπω 동사와 διαβλέπω, ἀναβλέπω, ἐμβλέπω, περιβλέπομαι 같은 파생동사들이다. 그 외에도 ὀράω(εἶδον), θεωρέω, θεάομαι, δεικνύω(δείκνυμι) 같은 것들이 있다.¹⁾ 이 논문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바 ‘봄’을 의미하는 다양한 어휘들을 문맥에 따라 관찰하고 그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며 보다 적합하고도 일관된 번역을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호서대학교 부교수, 신약성서학.

1) ‘봄’과 관련된 용어도 다수 등장한다. ὀφθαλμός(눈), ὄμμα(눈), φῶς(빛), φέγγος(빛), ἥλιος(해), σελήνη(달), ἀστὴρ(별), ὄψις(저물다), ὄψια(저녁) 등이 그들이다.

이 논문의 전제는 마가가 자기의 복음서 안에 ‘봄’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삼았으며, 또한 봄의 모티프를 문학적으로 정교하고도 일관되게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봄의 신학이 비유와 치유 등 여러 문학적 전략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비유는 상징과 시어(詩語)로 가득한 ‘그림언어’로서, 청각적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 효과를 창출한다(4:1-35). 치유는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되 복음의 진면을 보게 하여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한다(8:22-26; 10:46-52).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마가가 ‘봄’의 모티프를 문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일관되게 구조화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기초 위에서 번역상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번역에 있어서는 본문 본래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가, 봄의 여러 차별적 의미가 번역에 분석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가, 각각의 차별적 용어들이 일관되게 번역되고 있는가 아니면 혼란스럽게 번역되었는가 하는 점들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2. 문학적 관찰과 신학적 성찰

2.1. 비유와 보지 못함의 함정

(1) 예수의 비유들 및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마가복음 4장(1-34절)은 ‘봄’과 ‘들음’, ‘빛’과 ‘소리’, 그리고 ‘시각’과 ‘청각’에 관련된 어휘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다. 이를테면, ‘보다’(βλέπω: 12절×2회)와 ‘보다’(ὀράω/εἶδον: 12절), ‘등불’(λύχνος)과 ‘등경’(λυχνία), ‘드러내다’(φανερῶω: 22절)와 ‘감추인’(ἀπόκρυφος: 22절), ‘나타난’(φανερὸς: 22절)과 ‘숨은’(κρυπτός: 22절), ‘자다’(καθεύδω: 27절)와 ‘깨다’(ἐγείρω: 27절), ‘밤’(νύξ: 27절)과 ‘낮’(ἡμέρα: 27절), 그리고 ‘해’(ἥλιος: 6절) 모두 ‘봄’(빛, 시각)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반면에 ‘말하다’(λέγω: 2, 9, 11, 13, 21, 24, 26, 30절), ‘크게 말하다’(λαλέω: 33, 34절), ‘들다’(ἀκούω: 3, 9, 12, 15, 16, 18, 20, 23, 24, 33절), ‘귀’(οὖς: 9, 23절), ‘말씀’(λόγος: 14, 15[2], 16, 17, 18, 19, 20, 33절)은 모두 들음(소리, 청각)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2)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ὡς βλέποντες βλέπωσιν καὶ μὴ ἴδωσιν)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4:11-12).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마가는 비유를 기본적으로 ‘봄’과 ‘들음’의 관계로 이해한다. ‘봄’이 참된 앎으로 인도하는지, ‘들음’이 참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지 그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4:12).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는 비유를 시작할 때 청중에게 명하였다. “들으라. 보라”(ἀκούετε. ἰδοὺ)(4:3). 그리고 다시 명할 것이다.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Βλέπετε τί ἀκούετε)(4:24). 4장(1-34절)에 ‘봄’과 ‘들음’, ‘빛’과 ‘소리’, 그리고 ‘시각’과 ‘청각’에 관련된 어휘가 그리 많이 등장하는 이유기도 하다.

둘째, 비유는 기본적으로 ‘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가르친다(4:2, 26, 30). 물론 비유는 말로 하는 언설(言說)의 한 형태다. 그런데 비유로 말하니 사람들이 정말 보기는 본다고 한다(12절). 본시 비유란 ‘그림 언어’다. 잠시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이 끝나고 소리가 사라졌어도, 머릿속에는 잔상(殘像)처럼 그림이 남는다. 소리가 그림을 그리고 말씀이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비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예술이 된다. 그래서 예수가 비유로 말씀하면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마가복음 4장에 ‘봄’과 ‘들음’의 용어가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²⁾

셋째, 그러나 마가를 따르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한 수단이다. 비유가 오해의 함정이라는 것이다. 예수가 비유로 말하면, 비유는 사람들에게 참된 ‘봄’을 가로막는다. 위 12절 말씀을 따르면 예수가 비유로 말씀하니 외인들(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결국에는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 ‘보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βλέπω다. ‘알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ὁράω다. 그런데 ὁράω 또한 ‘보다’를 뜻한다.³⁾ 12절 말씀의 뜻은 이렇다. 예수가 비유로 말씀하니, 비유의 취지든 하나님의 나라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는 보는데 그것의 진면목을 보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12절에서 마가는 봄의 동사를 두 개 사용하여 ‘봄’을 차별화하고 있다. 사람

2) 문우일, “마가복음 4:3의 번역과 해석”,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12) 157도 같은 입장이다.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은 4:24(Βλέπετε τί ἀκούετε)를 직역하지 않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매우 완곡하게 의역하였다. 조태연, 『예수 이야기 마가 1. 복음의 시작』(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05-231은 비유를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로 정의하면서 마가가 어떻게 비유로 ‘봄’의 신학을 펼치는지 관찰하였다. 이는 4:3, 24의 해석과 번역에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 특히 24절의 해석과 번역을 위해서는 이 책 212-214쪽을 보라. 그러나 신현우, “마가복음 4:24-25의 주해와 원문 복원”, 『성경원문연구』 14 (2004/4) 87-106은 반대 입장이다.

3) 마가복음에서 이 용어(ὁράω)는 52회 사용되었다. 우리 말 성경 『개역개정』은 그 중 3회만 ‘알다’로 번역하고(4:12; 12:15, 28), 1회는 “나타나다”로 번역하고(9:4, 수동태), 나머지는 모두 ‘보다’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 단어는 많은 경우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을 뜻한다. 아래 3.2와 각주 10을 보라.

들이 예수에게 비유를 듣고 무엇을 본다면(βλέπω), 그것은 그저 누구나에게 가능한 기초적인 봄에 불과하다. 그는 그저 피상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다. 거기까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을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ὁράω로서, 사람들이 그저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는 봄이며 복음의 진면목을 꿰뚫어보는 봄이다. 그래서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앎’으로 인도하는 그런 봄이다.⁴⁾ 하지만 비유는, 적어도 외인들(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11절)에게는, 그런 봄을 가로막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비유가 피상적인 봄(βλέπω)을 허용할 뿐 진면목을 보도록(ὁράω)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 마가는 ‘봄’의 신학을 위하여 비유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4:13). 예수의 제자들은 한 비유(씨 뿌리는 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모든 비유를 오해하게 될 것이다. 비유가 오해의 함정이라면 이 함정에 제일 먼저 빠진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런데 함정은 깊고 헤어내기 힘들다. 예수는 언제나 비유로만 말씀하는 것이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4:34).⁵⁾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모든 오해와 실패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예수가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나 참된 참다운 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4) 마가의 이야기 세계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각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문학적으로 식탁 교제의 모티프와 항해의 모티프다. 예수는 두 차례의 장엄한 기적을 통하여 큰 무리를 먹이는데, 이때마다 제자들은 예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실패한다(6:34-44; 8:1-10). 비유 후, 그리고 먹이심의 기적을 전후로 바다를 건너는 항해에서 제자들의 실패는 극에 달한다. 그것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공중의 새가 먹듯(4:4), 저들의 귓전에 떨어진 예수의 말씀을 편견과 불신의 ‘리위야단’에게 빼앗겨버리기 때문이다(4:14-15, 35-41; 6:45-52).⁶⁾ 식탁 교제의 모티프와 항해의 모티프가 결합되는 곳은 마

4) ὁράω가 이렇게 ‘진정으로 보다’를 뜻하는 것 외에도 ‘알다’, ‘알아보다’, ‘알아차리다’를 뜻할 수 있다. 아래 3.2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살펴라.

5) 혹자는 34절의 αὐτοῖς가 “외인들”(외부인)이어서 예수는 이들에게만 비유로 말씀하였고 제자들에게는 오해의 가능성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αὐτοῖς는 제자들을 포함한 일반 청자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위에 인용한 13절을 보면, 분명 비유를 알지 못한 것은 제자들이다. ‘비유로 말씀하심’ 때문에 제자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침묵의 명령과 더불어, 마가복음의 ‘메시아 비밀’에 대한 신약성서학의 오랜 학설이다.

6) 성서의 이미지 세계에서 바다는 옛 뱀이라고도 불리는 사단 곧 리위야단이 사는 혼란의 영역이다. 시가서와 예언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을 보라(욘 12:15; 41:1; 시 74:13-14;

지막 향해의 이야기다(8:13-21).⁷⁾ 여기서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다” 하고 자책한다(16절). 분노한 예수가 질책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17-18절).⁸⁾ 예수의 제자들은 과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2.2. 치유와 보게 됨의 희망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맹인을 치유하는 것은 두 차례다. 소리의 장애인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이야기가 두 차례 나오듯(7:31-37; 9:14-29), 빛이 없는 환자에게 빛을 찾아주는 이야기도 두 차례 나오는 것이다. 바로 벳새다 맹인의 이야기(8:22-26)와 예리고의 맹인 바디매오 이야기다(10:46-52).

벳새다 맹인의 이야기(8:22-26)는 불과 세 절 안에 ‘봄’을 뜻하는 동사가 한꺼번에 다섯 개나 등장한다(23-25절). ‘보다’(βλέπω: 23, 24절), ‘(기이한 일을) 보다’(ὀράω: 24절), ‘우리러보다’(ἀναβλέπω: 24절), ‘주목하여 보다’(διαβλέπω: 25절), ‘온전히 보다’(ἐμβλέπω: 25절)가 그것들이다. 그 외에 ‘눈’(ὄμμα: 23절), ‘눈’(ὀφθαλμός: 25절), ‘맹인’(τυφλός: 22, 23절), ‘밝히’(τηλαυγῶς) 등도 모두 ‘봄’(빛, 시각)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예리고의 맹인 바디매오 이야기(10:46-52)에서도 ‘맹인’(τυφλός: 46, 49, 50, 51절), ‘우리러보다’(ἀναβλέπω: 51, 52절)와 같이 ‘봄’과 관련된 용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듣다’(ἀκούω: 47절), ‘소리 지르다’(κράζω: 47, 48절), ‘조용히 하다’(σιωπάω: 48절), ‘꾸짖다’(ἐπιτιμᾶω: 47절), ‘말하다’(λέγω: 47, 49절), ‘부르다’(φωνέω: 49절 [2]) 등은 들음(소리, 청각)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후자

89:9-13; 95:5; 사 27:1; 40:12; 51:9-10, 15; 렘 31:35; 암 5:8; 9:6; 계 12-13장). 실제로 첫 번째 향해 이야기(4:35-41)는 첫 번째 귀신 축출 이야기(1:21-28)와 닮았다. 예수는 귀신을 “꾸짖으며” 또 “잡잡하라” 명령하듯(1:25).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에게 “잡잡하라. 고요하라” 명한다(4:39). 사람들이 “이는 어쩐이냐?” 물으며 놀라듯(1:27),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놀란다(4:41). 사람들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고 감탄하듯(1:27),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란다(4:41). Adela Yarbro Collins, *Mark. A Commentary*, Hermeneia Seri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07), 261-263. 바다는 이렇게 귀신과 마찬가지로 축귀의 대상이 된다. 비유 이야기에서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존재라면, 첫 번째 향해에서 바다는 제자들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사탄의 역할을 한다.

7) 마가복음의 향해 모티프에 관하여는 조태연, 『성서복음의 인문적 감상. 예수 이야기 마가와 스토리텔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94-115, 식탁 교제 모티프에 관하여는 같은 책 157-193을 보라.

8) 특히 마가복음의 마지막 향해(8:13-21)에 관한 풀이로는 조태연, 『성서복음의 인문적 감상』 108-110, 166-168을 보라.

가 전자 못지않게 많이 나타남으로써 비유 본문(4:1-35)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매오 이야기(10:46-52)를 먼저 살펴보면, 이는 맹인 바디매오의 전기적 경험이다. 예수와의 격한 만남 끝에 그는 필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예수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자,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 하나이다”(Ραββουνι, ἵνα ἀναβλέψω) 하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였다(51절). 그는 우러러보기

를 간절히 소원한 것이다. 그 결과 그는 드디어 소원을 성취하였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10:52). 직역하면, “그가 곧 우러러보았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καὶ εὐθὺς ἀνέβλεψεν καὶ ἠκολούθει αὐτῷ ἐν τῇ ὁδῷ)이다.⁹⁾ ‘우러러봄’(‘위를 봄’, ἀναβλέπω)은 ‘따름’(ἀκολουθέω)을 수반하였다. 예수의 은혜로 우러러보게 되니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마가 복음에서, 적어도 바디매오 이야기에서, 우러러봄은 제자 됨의 전제 조건이다. 위를(높이) 보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다.

벧새다 맹인의 이야기(8:22-26)는 좀 더 세밀한 관찰을 요한다. 마가는 짧은 본문 안에서 ‘봄’의 동사를 다섯 가지나 사용하되 여섯 차례나 반복한다. 이 다섯 가지 동사는 모두 차별화되어 다른 문맥에서 사용된다.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도록 말이다. 아래 23-25절에 쓰인 동사들을 살펴라(본문은 『개역개정』이다. 괄호 안의 그리스어는 기본형이다).

23 …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βλέπω) 물으시니

24 쳐다보며(ἀναβλέπω)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βλέπω).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ὁράω) 하거늘

25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διαβλέπω)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ἐμβλέπω).

아무것도 볼 수 없던 맹인에게 치유의 행위를 한 후 예수는 “무엇을 보느냐?” 묻는다(23절). 그러자 맹인은 “내가 사람들을 보나이다” 하고 답한다. 이

9) 문장의 전반부를 “시력을 회복하였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복음서의 맹인 치유 이야기에서 문맥상으로는 ‘시력을 회복하다’(보게 되다)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ἀναβλέπω는 근본적으로 ‘우러러보다’를 뜻한다. 즉 ‘위를 보다’ 또는 ‘높이 보다’를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은유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위로 하늘을 보는 것이며(6:41; 7:34), 무엇을 보되 진정으로 보는 것이다(10:51, 52). 아래 3.1과 각주 22를 보라. 『개역개정』은 ἀναβλέπω를 “우러러다”(6:41; 7:34), “쳐다보다”(8:24), “보다”(10:51, 52), “눈을 들다”(16:4)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였다.

때엔 그저 ‘보다’를 뜻하는 βλέπω를 사용한다(24절).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무엇을 보게 되기까지는, 예수의 치유 행위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환자 편에서의 우러러보는 행위(ἀναβλέπω)가 있다(24절). 곧이어 환자는 말한다. 사람들이 마치 나무와 같다. 사람들이 나무와 같이 여기저기 서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무와 달리, 신기하게도, 걸어 다니고 있다. 환자는 바로 이 점을 보고 있다(ὁράω)(24절). βλέπω가 그저 무엇을 보는 객관적 용어라면, 여기 ὁράω는 놀라움의 요소를 포함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이함이다. ὁράω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¹⁰⁾ 하지만 아직 치유는 충분치 못하고 환자의 상태는 온전치 못하다. 그러므로 예수는 환자의 두 눈에 다시 안수한다. 예수가 치유의 행위를 일으키자 환자가 다시 응답한다. 그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다”(διαβλέπω). 여기 ‘디아블레포’는 의식을 또렷이 하고 시력에 초점을 모아 무엇을 보되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이다.¹¹⁾ 그러자 환자는 드디어 완전한 치유함을 받아 드디어 사물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다(ἐμβλέπω).¹²⁾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기 전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후 온전히 보게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예수를 만나기 전, 보지 못하다
2. 예수를 만난 후, 드디어 보게 되다(βλέπω)
 - [안수 1] 위를 보다(ἀναβλέπω) → 기이한 일을 보다(ὁράω) →
 - [안수 2] 주목하여 보다(διαβλέπω) → 온전히 보다(ἐμβλέπω)

이상, 봄을 뜻하는 다섯 개의 동사는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3. 복음과 ‘봄’으로의 초대

10) J. Kremer, “ὁράω”, *ED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II. 526-529는 이 용어가 초대교회와 초기 기독교문서들(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건을 보거나, 이전 세대들이 보지 못한 예수의 일을 보거나, 혹은 부활의 그리스도나 심지어 하나님을 뵈옵는 데 쓰이는 용례를 주목한다. 마가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예수의 세례(1:10), 변모(9:4, 19), 사람의 아들이 강림하는 것을 보는 데 쓰였다(13:26; 14:62). 제자들은 불원간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뵈옵게 될 것이다(16:7).

11) 주목하여 보는 것(διαβλέπω)은 사람이 무엇을 볼 때에 의식을 또렷이 하여 보는 것으로서, 걸뿐 아니라 속까지도 들여다보는 것이다. “διαβλέπω”, *ED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I. 297.

12) ἐμβλέπω는 누구를 볼 때에 그에게 시선을 붙들어 매는 것을 뜻한다. 혹은 영적 감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M-M, “ἐμβλέπω”, Walter Bauer ed.,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254.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1:1)을 예수의 세례로 제시한다.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1:9-11). 구원사적 사건의 시작을 이루는 예수의 비범한 체험이란, ‘프뉴마’(τὸ πνεῦμα)가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초자연적 사건을 본(ὁράω) 사건이다.¹³⁾ τὸ πνεῦμα는 직역하면 ‘그 영’(the spirit), ‘그 바람’ 또는 ‘그 숨’이다.¹⁴⁾ 야훼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 모양의 진흙덩이를 진짜 사람이 되게 하셨다(창 2:7).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죽었던 예수는¹⁵⁾ 당신에게 그 ‘생명의 숨’(생기)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몸소 보았고 또 체험하였다. 이 ‘봄’의 체험(10절)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소리를 들은 ‘소리’의 체험(11절)과 더불어,¹⁶⁾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의 기원이 된다(1:1).¹⁷⁾

비유의 이야기는 오해의 함정을 포괄하는 복음의 ‘그들’이면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맹점(blind spot)이라 할 수 있다.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비판(8:18)은 독자들을 향한 강력한 도전으로서, 바로 보아야 함을 알리는 메시지다. 치유의 이야기는 맹인조차 보게 하는 복음의 ‘햇살’이

13) 하늘이 열리고 예수에게 임한 것은 분명 ‘토 프뉴마’(τὸ πνεῦμα)였다. 『개역개정』은 “성령”이라고 번역하였다.

14) J. Kremer, “πνεῦμα”, *EDNT II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117-123.

15)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세례가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 받은 침례였고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의 세례였던 점에 대해서는 조태연, 『예수 이야기 마가 1』, 26-27을 보라.

16) 예수의 세례를 보도할 때에 복음서 저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을 택하였다. (1) 마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 한다. 마가복음에서처럼 예수 자신이 ‘본다’(3:16). 그러나 하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다(3:17). 마가와 달리, 하늘이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중에 예수를 3인칭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2) 누가는 아주 다르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한다(3:22). 오히려 한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인증하는 구도를 그려내는 것이다. (3) 그러나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 빛과 소리는 완전히 예수 당신의 체험이다. “그 영”(생명의 숨결)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은 분명 예수 자신이다(1:10). 이후에 하늘은 음성으로써 예수에게 직접 사랑과 신뢰를 고백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1:11).

17) ‘빛’과 ‘소리’에 대한 예수의 체험이 ‘복음의 기원’이 되는 것은 조태연, 『성서복음의 인문적 감상』, 197-212를 보라. 특히 이 책 제6부는 마가복음을 ‘소리의 서사시’로 읽는 가능성을 열고자 하였다.

면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새 희망이라 할 수 있다. 맹인조차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는 증언(10:52)은 독자들을 향한 강력한 권면으로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해야 함을 알리는 처방이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근본적으로 참 빛과 소리로 부르는 초청이다. 소리를 체험한 예수가 몸소 소리가 된 것처럼, 빛을 체험한 예수는 몸소 빛이 된다. 소리가 된 예수가 “들으라”(4: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명하는 것처럼(4:9, 23. 참조, 4:33), 빛이 된 예수는 “보라” 명한다(1:44; 4:3; 8:15; 16:6).¹⁸⁾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의 참 모습을 보아야 한다. 때로는 소리가 그리는 그 심오한 형상조차 볼 수 있어야 한다.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4:24).¹⁹⁾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종말의 때 위기의 순간에는, 잔뜩 긴장한 채 자신과 주변을 응시해야 한다. “주시하라”(8:15; 13:5, 9, 23, 33).²⁰⁾ 결정적인 순간에 똑바로 주시하기 위해서는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파수할 수 있다. “깨어 있으라”(13:33, 34, 35, 37; 14:34, 38. 참조, 14:37).

3. 번역상의 문제와 제언

지금까지 마가복음이 문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봄’의 어떠한 틀을 제시하는지 살펴보았다. 마가는 비유와 치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음과 함께 ‘봄’을 복음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마가는 ‘보다’를 뜻하는 여러 단어를 분석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로는 우리 말 성경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이들 각 용어가 어떻게 번역되었으며,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고, 따라서 어떻게 번역됨이 더 좋은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βλέπω 및 파생동사

(1) βλέπω는 마가에서 15회 쓰였다. 『개역개정』은 그 가운데 일곱 구절에서

18) 우리 말 성경 『개역개정』은 1:44의 ὄρα, 4:3의 ἰδοῦ, 그리고 8:15의 ὀράτε를 번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16:6의 ἴδε는 “보라”로 번역하였다.

19) 앞의 각주 2를 보라.

20) 마가복음엔 ‘보다’를 뜻하는 βλέπω 동사의 2인칭 명령법(βλέπετε)을 7회 사용하였다(4:24; 8:15; 12:38[우리 말 번역에서는 39절]; 13:5, 9, 23, 33). 『개역개정』은 이들을 “삼가라”(4:24; 12:39; 13:23), “주의하라”(8:15; 13:5, 33), “조심하라”(13:9)로 각기 다르게 번역하였다.

아래와 같이 ‘보다’로 번역하였다. 8:23, 24는 원문의 능동태를 수동태로 번역하여 부드러운 우리말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문을 살려 각각 “네가 무엇을 보느냐?”와 “내가 사람들을 보나이다”로 바꿈이 좋다.²¹⁾

- 4: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5:31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8: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8:23 무엇이 보이느냐
 → **내가 무엇을 보느냐**
 8:24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 **내가 사람들을 보나이다**
 12:14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13:2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나머지 7회는 명령형(βλέπετε)인데, 아래에서 보듯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로 번역함으로써 일관성을 잃었다. 4:24(Βλέπετε τί ἀκούετε)는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고 직역해야 마가의 의도를 살릴 수 있다. 마가 복음에서 비유는 ‘그림언어’로서 청각적 현상을 통하여 시각적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동사로 번역하되 용어를 통일함이 낫다. “주의하라” 또는 “조심하라” 중 하나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뉘의 의미를 함축하는 “주시하라”를 택할 수도 있다.

- 4:24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8:15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시하라**
 12:38 서기관들을 삼가라. (우리말은 39절)
 → **서기관들을 주시하라**
 13:5,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시하라**
 13: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21) 특히 8:24의 주요 부분(βλέπω τοὺς ἀνθρώπους ὅτι ὡς δένδρα ὁρῶ περιπατοῦντας)을 전체로 읽을 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βλέπω).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ὁρῶ)는 나쁜 번역이다. βλέπω와 ὁρῶ가 모두 능동태인데 전자만을 수동태로 번역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모두 능동태로 직역하여 “내가 사람들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로 함이 낫다. 마찬가지로 23절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로 직역함이 옳다.

- 너희는 스스로 주시하라
- 13:23, 너희는 삼가라
 - 너희는 주시하라
- 13:33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 주시하라. 깨어 있으라

(2) περιβλέπομαι는 모두 “둘러보다”로 번역하였다. 오직 3:34만 예외인데, 그냥 “보시며”라 하였다. 오히려 『개역한글』로 돌아가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시며”로 번역함으로써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

- 3:5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 3:34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 5: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 9: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 10:23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 11:11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3) ἀναβλέπω는 『개역개정』에서 ‘우러르다’, ‘쳐다보다’, ‘보다’, ‘눈을 들다’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ἀναβλέπω는 ‘봄’을 뜻하는 다른 동사들과 확연히 다르다. 이 단어는 ‘우러러보다’ 또는 ‘위로(높이) 보다’를 뜻한다. 이것은 분명 은유(metaphor)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속한 일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을 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바라보는 경험이다. 그러므로 ‘우러러보다’나 ‘위로(높이) 보다’로 번역함이 좋다. 문맥에 따라서는 ‘눈을 들어 보다’나 ‘진정으로 보다’를 택할 수 있다. 6:41과 7:34는 “하늘을 우러러보며”로, 8:24는 『개역한글』대로 “우러러보며 이르되 사람들이”로 함이 좋다. 10:51, 52는 문맥상 각각 “선생님이여,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와 “그가 곧 진정으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로 번역함이 좋다. 16:4는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눈을 들어 본즉”을 유지함이 좋다.²²⁾

22) 신약성서에 25회 등장하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6회 나타난다. 이 단어는 예수가 돌무화과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볼 때처럼 ‘위를(위로) 보다’(to look up)를 뜻한다(눅 19:5).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소통할 때엔 ‘우러러보다’를 뜻한다(막 6:41; 7:34). “메시아적, 종말론적 구원의 시대가 밝아오는 징표로서” 시력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막 8:24; 10:51에서 소경이 시력을 회복한다). P.-G. Mueller, “ἀναβλέπω”, *EDNT 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76.

- 6:41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사하시고**
- 7: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시고**
- 8:24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 **우러러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 10:51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 **선생님이여,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 10:52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 **그가 곧 진정으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 16:4 눈을 들어 본즉

(4) διαβλέπω는 마가에는 한 번 등장하는데, “주목하여 보다”로 번역되었다. 이 용어는 본래 ‘주목하여 보다’와 함께 ‘ 꿰뚫어보다’, ‘뚫어지게 보다’ 등의 뜻을 지닌다. 그러나 『개역개정』의 번역은 무난하다.

- 8:25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5) ἐμβλέπω는 네 군데서 ‘보다’와 ‘주목하다’로 번역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8:25에서 ἐμβλέπω는 ἀναβλέπω(우러러봄)와 διαβλέπω(주목하여 ‘봄’)의 결과다.²³⁾ “밝히” 또는 “분명하게”를 뜻하는 τηλαυγώς와 결합하여 “밝히 보는 지라”로 번역되었지만, 다른 모든 경우와 함께 ‘온전하게 보다’의 의미를 담도록 번역되면 좋겠다. 10:21과 10:27에서 예수가 각각 재물이 많은 사람과 당신의 제자들을 본 것은 충분히 그리고 깊이 본 것이다. 14:67은 ὁράω와 ἐμβλέπω의 두 동사를 함께 쓰고 있다. 『개역개정』은 전자를 “보다”로, 후자를 “주목하다”로 번역하였다. 이는 마가가 이 동사(ἐμβλέπω)를 διαβλέπω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과 모순된다. “베드로가 불 쪼고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보며 이르되”로 함이 옳다.²⁴⁾

- 8:25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온전하게 보는지라**
- 10: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23) 위 2.2를 보라.

24) 14:67에서 한 여종은, 불을 쪼며 몸을 덮히고 있는 자가 베드로임을 알아보았다(ὁράω). 그리고는 그를 보면서(ἐμβλέπω) 말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ὁράω가 ‘알아 보다’의 뜻을 갖는 점에 대해서는 “3.2 ὁράω와 εἶδον”의 (5)를 보라.

- 10: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 14:67 불 쪼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 불 쪼고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보며 이르되

3.2. ὁράω와 εἶδον

(1) ὁράω와 εἶδον은 마가복음에서 ‘보다’를 뜻하는 여러 동사들 중 가장 많이 쓰인 용어다. 『개역개정』은 언제나 ‘보다’와 ‘알다’로 번역하였다. 물론 수동태로 쓰인 한 차례는 ‘나타나다’로 번역하였는데(ᾠφθῆν: 9:4), 이 또한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아래의 구절들도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보다’의 번역을 유지하는 게 좋다.

- 1:16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 1:19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 2: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 2:14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 2:16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 5:22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 6: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 7:2 쟃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 8:33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 9: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 9: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 9:14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 9:25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 9:38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 12:15 테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 12:34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 13:14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 13:29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 15:32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 15:36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2) 복음의 신현적(神顯的) 의미를 갖는 경우도 다수 있다. 마땅히 대안이 없으면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보다’를 유지함이 좋다.

- 1:10 그 영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 2:12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 8:24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데 보나이다
- 9:1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 9:9 인자가 ...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 13:26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 14:62 인자가 ...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 15: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 16:5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 16:7 갈릴리로 가시나니 ...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3) 마가는 아래에서 보듯 네 구절에서 ὁράω를 명령형으로 사용한다. 『개역개정』은 처음 세 구절에서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아예 누락시켰다(1:44; 4:3; 8:15). 오직 마지막 한 구절에서만 “보라”로 직역하였다(16:5). 그러나 처음 세 구절에서도 16:5에서처럼 “보라”로 직역해줌이 옳다. 특히 4:3의 ἰδοὺ를 번역해주어 “들으라.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로 함이 옳다.²⁵⁾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마가의 ‘봄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최소한, 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목을 끄는 말로 읽을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번역을 안 하면, 본문의 의도는 사라진다.

- 1:44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 보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²⁶⁾
- 4:3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 들으라.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 8:15 ... 누룩을 주의하라
→ 보라. ... 누룩을 주시하라²⁷⁾
- 16:6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4) 『개역개정』은 아래 세 구절에서 ὁράω를 ‘알다’로 번역하였다. 첫 구절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진정으로 보지는 못하며...”로 함이 마가의

25) 『공동번역』(“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현대인의 성경』(“잘 들어라.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새번역』(“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은 4:3의 ἰδοὺ를 번역하되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편을 택했다. 그러나 NASB는 ἰδοὺ를 직역하는 쪽을 택했다. “Listen to this! Behold, the sower went out to sow.”

26) RSV는 직역하여, “and said to him, ‘See that you say nothing to any one...’”이라 번역하였다.

27) 이 구절(Ὁρατε, βλέπετε ἀπὸ τῆς ζύμης)이 봄의 동사를 두 개나 중복하여 사용함을 주목하라. RSV는 다음과 같이 본문의 의도를 살리고자 하였다. “Take heed,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봄의 신학’을 반영하는 데 좋다.²⁸⁾

- 4:12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 **보기는 보아도 진정으로 보지는 못하며**
- 12:15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 12: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5) 『개역개정』은 아래 많은 구절에서 ὁράω를 ‘보다’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알아보다” 또는 “알아차리다”로 할 때에 더 나은 번역이 될 수 있다.

- 5:6 떨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 **떨리서 예수를 알아보고 달려와**
- 5:14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러 와서**
- 5:16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 **돼지의 일을 알게 된 자들이**
- 5: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알아보려고 둘러보시니**
- 6:33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 **그들이 가는 것을 알아보고**
- 6:38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 6:49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알아보고**
- 6:50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 **그들이 다 예수를 알아보고 놀람이라**
- 9: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 **온 무리가 곧 예수를 알아보고 매우 놀라며**
- 9:20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곧**
- 10:1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 **예수께서 알아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 11:13 떨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 **떨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알아보시고**
- 11:20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8) ὁράω는 ἀναβλέπω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10:51, 52가 그렇다.

-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알아보고
- 14:67 베드로가 불 쪼고 있는 것을 보고
 - 베드로가 불 쪼고 있는 것을 알아보고
- 14:69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3.3. 기타

(1) θεωρέω는 마가복음에서 일곱 차례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단지 보는 시각적 행위부터 내면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괄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관객(관중, 구경꾼, 관찰자)으로서 “살펴보는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및 매장과 관련되어 쓰였다(15:40, 47).²⁹⁾ 예수를 주어로 하는 두 구절에서는 “바라보다” 또는 “지켜보다”의 뜻이다(5:38; 12:41). 그 외의 구절들에서는 ὁράω의 여러 구절들에서처럼 복음의 신현적(神顯的) 의미를 반영한다. 특히 수난사화의 세 구절에서는 ‘바라보다’와 ‘보다’로 번역되었는데(15:40, 47; 16:4),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건에 대한 여인들의 관찰을 의미한다. 이 세 구절 뿐 아니라 일곱 구절 모두 ‘바라보다’로 통일함이 좋다.

- 3:11 더러운 귀신들도 ...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 더러운 귀신들도 ... 예수를 바라보면 그 앞에 엎드려
- 5:15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 앉은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더라
- 5:38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바라보시고
- 12:41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바라보실새
- 15:40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 15:47 예수 둔 곳을 보더라
 - 예수 둔 곳을 바라보더라
- 16:4 눈을 들어 본즉
 - 눈을 들어 바라본즉

(2) δείκνυω와 δείκνυμι는 아래와 같이 두 차례 사용되었는데, ‘보여주다’로

29) M. Voelkel, “θεωρέω”, *EDNT I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147.

함이 더 좋다.

- 1:44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14:15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3) θεάομαι는 두 차례 사용되었는데 한 번은 능동태로, 또 한 번은 수동태로 번역되었다. 16:11도 16:14에서처럼 능동태로 번역함이 더 좋다. 그렇지 않으면 16:14를 16:11처럼 수동태로 번역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사”로 해야 한다.

- 16:11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16:14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4) 그 외에 εὐρίσκω는 본래 ‘봄’의 동사가 아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 언제나 ‘보다’와 ‘만나다’로 번역되었다. 오히려 ‘찾다’와 ‘발견하다’로 함이 좋다. 몇몇 구절은 문맥상 그대로 둬야 하나 ‘발견’의 의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7:30; 11:2, 4).

- 1:37 만나서 이르되
 → **그를 찾아 이르되** 30)
 7: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11:2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11: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11:13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 **혹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더라
 13:36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 **너희가 자는 것을 발견하지 않도록 하라**
 14:16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발견하고**31)

30) “만나다”를 뜻하는 동사는 따로 있다. 마가는 이를 위해 ἀπαντῶ를 사용한다(14:13).

31) 14:16에서 εἶπον의 목적이 13절의 물 한 통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면 “... 만나”가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체의 상황을 목적으로 설정한다.

- 14:37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발견하시고**
- 14:40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 **다시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발견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눈이
- 14:55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 **그를 칠 증거를 구하되 찾지 못하니**

4. 나가는 말

마가복음은 들음과 함께 ‘봄’을 복음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였다. 마가는 비유와 치유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진리의 깨달음에 ‘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무엇을 보기는 보아도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다. 비유는 ‘봄’(βλέπω)과 ‘진정한 봄’(ὄρώω) 사이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피막처럼 기능한다(4:12). 그런데 진정 보지 못하는 이로 전락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의 제자들이다(4:13, 34). 그래서 그들은 잇단 항해에서 실패하고 오해의 바다에 빠져든다(4:35-41; 6:45-52). 마지막 항해에서 그들은 예수께 극단적인 질책을 듣는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8:17-18). 그러나 치유는 맹인들에게 발생한다(8:22-26; 10:46-52). 예수가 치유의 은혜를 베풀 때에 그들은 우러러보고자 한다. 위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ἀναβλέπω). 치유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맹인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기 시작한다(ὄρώω). 예수가 다시 치유하고 불후의 은혜를 베풀면 맹인은 주목하여 본다(διαβλέπω). 그리고는 이내 온전히 본다(ἐμβλέπω).

이 논문은 ‘봄’을 마가가 어떤 문학적인 모티프로 발전시켜 나갔는지, 그리고 ‘봄’에 어떤 신학적 성찰을 입혔는지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봄’의 여러 동사들을 마가가 어떻게 분석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사용하였는지 관찰하였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개역개정』을 중심으로 우리 말 성경이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옮길 때에 ‘봄’의 동사들(βλέπω, ὄρώω, ἀναβλέπω, διαβλέπω, ἐμβλέπω, θεωρέω, 그리고 δείκνυω와 δείκνυμι)을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일일이 점검하였다. 이들 어휘에 새로운 번역을 제안한 것은 각 어휘가 본래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마가는 각 어휘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우리말의

문맥에서 어떻게 번역할 때에 본래의 의미를 자아낼 수 있는지 하는 점들이 주된 고려 사항이었다. 모든 작업은 각각의 어휘를 모든 구절들에서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여 본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주요어>(Keywords)

마가복음, 비유와 치유, ‘봄’의 신학, ‘봄’의 동사들, 번역.

The Gospel of Mark, parables and healings, theology of seeing, verbs of seeing, translation.

(투고 일자: 2013년 3월 18일, 심사 일자: 2013년 4월 3일, 게재 확정 일자: 2013년 4월 3일)

<참고 문헌> (References)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The New Oxford Annotated Bible with the Apocrypha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5/1977.
- Collins, Adela Yarbro, *Mark. A Commenta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07,
Hermeneia Series.
- Kremer, J., “ὀράω”, *ED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II, 526-529.
- Kremer, J., “πνεῦμα”, *ED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III, 117-123.
- M-M., “ἐμβλέπω”, Walter Bauer, ed.,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254.
- Mueller, P.-G., “ἀναβλέπω”, *EDNT* 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76.
- Mueller, P.-G., “βλέπω”, *EDNT* 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221-222
- Voelkel, M., “θεωρέω”, *EDNT* I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147.
- 문우일, “마가복음 4:3의 번역과 해석”,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12),
153-159.
- 박영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국어학적 연구-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
경원문연구」 28 (2011/4), 226-247.
- 신현우, 『마가복음의 원문을 찾아서』, 서울: 웨스터민스터출판부, 2006.
- 신현우, “마가복음 4:24-25의 주해와 원문 복원”, 「성경원문연구」 14 (2004/4),
87-106.
- 조태연, 『예수 이야기 마가 1. 복음의 시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조태연, 『성서복음의 인문적 감상. 예수 이야기 마가와 스토리텔링』, 서울: 대한기
독교서회, 2011.

<Abstract>

**Verbs of ‘Seeing’ in the Gospel of Mark:
Literary and Theological Observation for Proper Translation**

Prof. Tae Yeon Cho
(Hoseo University)

In the Gospel of Mark, the gospel is revealed with extraordinary lights and voices. But faith comes out of the responses to the revelation. Mark has various ‘verbs of seeing’ in his gospel. They include not only βλέπω and its derivatives (διαβλέπω, ἀναβλέπω, ἐμβλέπω, περιβλέπομαι) but also ὁράω(εἶδον), θεωρέω, θεάομαι, and δείκνυω (δείκνυμι). This study repeatedly finds the fact that Mark uses each of these verbs for different layers of meaning in different contexts and in different occa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xact meaning of each verb in the Gospel of Mark; to point out either wrong translations or those bearing unclear meaning in the Gospel of Mark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and finally to suggest better translations of these verbs according to how Mark intended to use them in each verse.

Essential to this study is whether Mark has any ‘theology of seeing’ in his gospel or not. The answer is always positive. In his gospel, Mark developed theological insights of ‘light and voice’ and ‘seeing and hearing’ through the literary devices of parables and miracles of healing.

On the one hand, parables are ‘picture language’ full of symbols and poetic images. They are devices which create visual effects through audio effects. If one hears a parable from Jesus, one has some pictures in his or her mind even if the speech is over. Thus Jesus says, “Listen and look!” (Mark 4:3). He repeats, “Look what you hear” (Mark 4:24). On the other hand, Jesus articulates the reason to teach in parables that “they may be ever seeing but never truly seeing … otherwise they might turn and be forgiven!” (4:12). But an extremely critical question is directed to his disciples, “Don't you understand this parable? How then will you understand any parable?” (4:13). They misunderstood one parable, and would thus misunderstand all other parables. Crucial to them, however, is the fact that Jesus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without using a parable” (4:34).

Jesus will soon rebuke his disciples, “Do you have eyes but fail to see…?” (8:18)

The stories of healing the blind are miracles which open the eyes of the blinds (8:22-26; 10:46-52). The story of the blind in Jericho (8:22-26) uses five verbs of seeing in just three verses, which are βλέπω, ὁράω, ἀναβλέπω, διαβλέπω, and ἐμβλέπω. Each verb has its own place in the hierarchy of meaning. The blind are healed to ‘look up’ (ἀναβλέπω) and to ‘look perfectly’ (ἐμβλέπω). Ultimately the blind come to see the genuine characters of the gospel and the Kingdom of God, and they become true disciples of Jesus.

A good understanding of Mark’s ‘theology of seeing’ yields exact meaning of each verb of seeing in the gospel. Every verse which includes even a verb of seeing will be tested according to the former. All these observations and tests are suggestions for better translation of these verbs according to Mark’s intention for using them in each verse, especially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